



차문화연구보존회는 다도시연 후 삼광사 어르신들을 무대로 초대해 즉석에서 다도를 가르쳤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차를 따르는 모습.



삼광사 다문화유지컬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이 식전 무대를 장식했다.



주지 무원 스님이 전통차 부스를 돌아보며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소외이웃과 함께한 ‘茶 공양’ 축제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30주년 기념 ‘차문화 들차 어울림 한마당’

“차(茶)를 통해 좋은 마음, 좋은 관계, 좋은 소통을 만들어 항상 차와 같이 맑고 향기로운 일상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날 이 자리는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30주년 일 뿐만 아니라 차인들의 소통의 대축제입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힘찬 개회사가 무대 위에 울려 퍼지자 1000여 대중들의 웅장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부산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김미규)는 7월 23일 부산 삼광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차문화 들차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차문화연구보존회는 1985년 차공양을 시작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이날 자리는 차 전문가들의 다도시연부터 일반 시민들의 차체험 행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차판매 수익금 전달식 등 부산·경남지역 다인(茶人)들의 차 축제로 펼쳐졌다.

개막식에 이어 본 행사에서는 먼저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회원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다례인 ‘접빈다례’가 펼쳐졌다. 들른 분위기도 잠시, 차분한 옷차림을 한 다인들의 모습에 장내는 이내 조용해졌다.

이들은 정갈한 보자기로 차상을 덮어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차물을 내리기 전 보자기를 울리자 하얗게 드러난 백자다구들은 그 청명함에 좌중의 탄성을 자아냈다.

대중들이 숨을 죽이며 바라보는 가운데 김미규 회장의 죽비소리에 맞춰 차문화연구보존회 회원들은 고요하면서도 느리지 않게 다도를 선보였다. 이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를 보여줬다.

격조 높은 다도 시연에 이어 삼광사 내 신행단체들의 차문화연구보존회 30주년 기념 ‘차문화 예절 겨루기’도 열

렸다. 신행단체 대자비팀, 부일회, 삼광다도대학 초보팀, 어린이회 등 4개 팀이 참가했으며 우승은 대자비팀에게 돌아갔다.

앞선 보존회에 비해 다소 미숙한 몸놀림이었지만 대회에 임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겨루기에 참가한 이수자 부일회 회장은 “다도를 통해 격조 높은 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단상에 올라 시연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은 부일회 회원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다양한 차 문화, 지역민 위해 회향

신행단체 ‘차겨루기 대회’도 눈길

1000여명 운집, 지역 차인단체도 참가

천태힐링템플링상, 서예체험 등도 펼쳐져

이날 삼광사 곳곳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도 마련됐다. 차문화연구보존회와 함께 신라대 신라차문화원, (사)한국다도협회 부경지부, (사)차인연합회 온비다례원 등 지역의 차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황차·홍차·청차·말차 등 전통차를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장은 각기 다른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각 단체 회원들은 자신들의 차 테이블을 손수 준비한 수국, 국화 및

아름다운 다화로 장식했다.

부산 부암동에서 온 김영숙 씨(63)는 “다식을 맛보았는데 맛을 보기 전까지는 옥수수라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서 기분이 느껴졌다”며 “직접 만든 티 유포와 전통 찻잔 등도 이색적이었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차맛을 뛰는 전통차 제조 체험과 세계 차 문화 시음, 연꽃등 제작 등의 체험코너가 마련됐다. 또 들꽃 서예, 황산 이수백 도자기 특별초대전, 차·도에 명인전, 차문화 및 환경보호 특강, 캘리그래피·캐리커쳐 나눔 등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삼광사 신도 안금자 씨(74)는 “세계 차 문화 체험에서 몽골차를 마셨는데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특별했다”며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세계 각국의 차를 경험해 볼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차문화 보급의 대적점에 서 있다는 커피 문화도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대동대 호텔 소믈리에 바리스타학과의 학생들은 이날 행사장에서 대중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다.

바리스타로 참여한 김현지 학생(21)은 “커피 또한 인스턴트 방식에 대응해 전통적인 바리스타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통차 보존과 발전에 커피문화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도와 참선, 그리고 견기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천태힐링템플링상’도 열려 양산 동원과학기술대를 비롯한 부산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차문화연구보존회 30주년을 맞아 모두가 차를 매개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축제를 열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차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하성미 기자

“30년 차문화 보급... 전문가 350명 배출”

김미규 차문화연구보존회장



“30년 전 봉사단체로 시작한 저희 삼광사 차문화 연구보존회는 지금까지 350여 명의 차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삼광사 행사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소외계층까지 전례를 아우르는 활동으로 크고 작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김미규 회장은 차문화연구보존회의 가장 큰 힘은 전문인재양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을 위한 차문화 테라피 △청소년과 아동의 인성교육을 위한 차 문화 지도자 △다도공공 차문화 축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차 문화 축제 등 수많은 차 관련 행사 등 차문화연구보존회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재 삼광사 차문화 연구보존회 정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모두 삼광사 다도대학 1년, 고급반 1년을 거쳐 총 2년의 수료과정을 마친 재원들이다. 특히 차문화연구보존회에서 마련한

는 차 관련 강의는 전국의 대학교수 및 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강사진을 자랑한다.

“우수한 다도교수 초청은 물론 수준 높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수여해 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 많은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했던 일반인 주부가 차문화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김미규 회장은 올해 하반기 천태종 사찰을 중심으로 천태다법을 배포할 계획이다. “천태종 교의인 원융삼제(圓融三諦)는 우주만물이 있는 그대로 가치를 지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담은 천태다법은 그 어떤 다법보다 특별한 것입니다.”

삼광사 차문화보존회는

1985년 5월 21일 전통차 문화를 계승하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 창립했다. 1990년 6월 박경자 강사의 첫 강의를 시작으로 삼광사 다도대학이 개설됐으며, 같은 해 중국 항주 제1회 국제차문화대회 참가해 한국차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1995년 8월 (사)한국차인연합회에 가입해 차인들과의 교류에도 나서며 2002년 금당문화원 녹야 강옥희 선생의 다도 강좌를 개설하고 같은 해 10월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다도 시연에 참가했다. 2014년 제1회 다도공공 차문화를 주최해 종교를 뛰어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 삼광사 차문화보존회는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차문화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27법년

2015년

미술전 공모

대한불교조계종은 10·27법년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와 함께 10·27법년 2015년 미술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980년 10월 27일에 일어난 10·27법년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무고한 스님들과 불교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고초를 겪게 한 사건입니다.

10·27법년 2015년 미술전은 당시 사건을 현시대에 맞게 예술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10·27법년을 주제로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부문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10·27법년은 한 종교나 개인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의 아픔이자 상처입니다. 뚜렷한 인식과 반성을 바탕으로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줄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술작품을 공모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제출방법 및 작품규격

- 제출서류: 1) 출품신청서(별첨) 1부
2) 작품설명서(별첨) 1부
-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로드
- 작품 제출방법: 출품작은 제출서류(출품신청서(별첨), 작품설명서(별첨))와 함께 제출
- 작품장르: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사진
- 작품규격: 1) 평면: 가로 2m×세로 2.5m 이내 (액자 포함)
2) 입체: 가로 1m×세로 1m×높이 2.5m 이내 (좌대 포함)
- 출품 수: 1인 2점 이내
- 기타사항: 1) 출품신청서를 포함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출품작은 국내의 미발표 작품으로 주제와 맞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전시 장소가 개방형 공공장소임,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작품에 손상을 입음 경우,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2015년 1월 1일 현재)

■ 접수일정

- 접수일: 2015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TEL: 02-2011-1821)
- 응모비: 없음

■ 심사발표 및 작품반출

- 심사발표: 10월 22일(목)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개별통보
- 낙선작품 반출: 10월 22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 입상작품 반출: 10월 28일(수) 오후 4시~오후 8시
- 반출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 작품 반출시, 반출증을 필히 지참
- ※반출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주최 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시상내역

시상내역	작품구분	상장 및 상금	시상자
대상	1명	상장 및 부상(상금 500만원)	총무원장
최우수상	2명	상장 및 부상(상금 200만원)	10·27법년위원장
우수상	3명	상장 및 부상(상금 100만원)	운영위원장
특선	10명 내외	상장 및 부상(상금 50만원)	심사위원장
입선	00	상장 및 부상(템플스테이권 2매)	사무처장

■ 문의처

10·27법년 미술전 담당 이자은
Email: 1027bnan@naver.com
TEL: 02-2011-1821, FAX: 02-735-0614
www.buddhism.or.kr

10·27법년 미술전 운영위원장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 주관: 10·27법년 미술전 운영위원회
- 후원: 국무총리소속 10·27법년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